



독자들의 질문을 받습니다. 불법을 수행하시는 중에 의문이 생기거나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서신이나 팩스 또는 PC통신으로 보내 주십시오. 조계종 한양불교대학의 대령스님에게 여쭙어 응답해 드립니다. 삶의 고뇌에 대해서도 상담해 드립니다. <লেখক: 권지자> ● 본필: 우 110-170 서울시 중로구 경지동 110-33 현대불교신문사 '길을 묻는 이에게' 담당자 앞 ● 인터넷: www.hanmaum.org 또는 한마을 선원 ● FAX: (031)470-3116

길을 묻는 이에게



법공양 페이지

자기 불성에 다 놓고 웃고 살자

불교는 어떻게 믿어야 합니까

문 저는 불교에 관심이 많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관심과 의욕은 가지고 있습니다만 어디서부터 어떻게 시작해야 불교를 잘 알 수 있는 건지 감을 못 잡겠습니다.

답 불교는 어떤 종교냐고, 불교를 어떻게 믿어야 잘 믿는 거냐고 많이 묻는데 평상시에 우리가 사는 삶 자체가 그대로 불교요, 그대로 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일체 생명이 다 불(佛)이고 마음과 말로써 이글어 끝없이 이어지는 원리가 바로 교(敎)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개개인 나 자체를 버리고는 살 수가 없는 거고, 또 나 자체를 안 버리고도 살 수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물질적인 모습은 한계가 있을 뿐만 아니라 그걸로 인해 고통을 하지 않고는 살지 못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움직여서는 게 사람이고 움직여서는 게 도 아니겠느냐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냥 모습을 가지고 움직여서는 것만이 도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모습 아닌 나 자체가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모습 아닌 나. 여러분이 세상에 나올 때에 생명력이라고 하는, 생명력이라 하는 그 자체가 바로 불성이자 주인공이요.

그래서 나는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모습은 물질이지만, 그 모습이 있는 반면에 그 모습을 형성시킨 참 자기가 거기 들어 있으니 그걸 주인공이라고 한다. 그러니 모든 것을 그 주인공에 다 맡겨 놓으라고 합니다. 그것이 말하자면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자기가 바로 부처"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무엇이든 거기가 다 놓고 가지, 어떠한 문제가 있어도, 하늘이 쪼개진다 하더라도 거기가 다 놓고 웃고 살자고 합니다. 이 모습을 나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모습 아닌 나 자체를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보이는 문제가 반이려면 보이지 않는 문제가 반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이지 않는 것을 대처 못하면 보이는 것도 대처를 못하니깐 생활하는데 여간 큰 문제가 아닙니다. 사회적인 문제나 생활의 문제나 뭐 하나도 버릴 게 없는 것이 바로 거기서부터 나오기 때문입니다.

이 모두를 그렇게 생각지 않는다면 도저히 무엇을 결정할 수도 없거나 또는 길을 걸어나갈 수도 없습니다. 우리가 한다 못한다, 망했다 아프다, 죽는다 산다 이렇게 생각하기 이전에 자기 불성(佛性)에다가 모든 것을 맡겨 놓으세요. "너만이 해결할 수 있다. 네가 이 몸뚱이 형성시켜서 사자로 된 거니깐 모든 걸 내게 해결할 수 있다" 그리고 다 거기가 놓아야 합니다.

어떠한 급한 일이 생겨도 거기가 놓고 구질구질 생각을 그렇게 해 나간다면 한 군데로 나왔던 한 군데로 들어가고, 한 군데로 들었다가 한 군데로 나오고 이렇게 됩니다. 그러나 나를 형성시킨 그 한 군데에 열심히 놓아 간다면 불교라는 이름도 내 한마음 속에 있는 것이고, 나라는 것도, 상대라는 것도 그 자리에서 다 나왔다는 것을 알게 될 터이니 그것이야말로 불교를 가장 잘 아는 것이고 부처님의 가르침을 실천하는 것이라 할 수 있을 겁니다.

딸아이 죽은 후 의욕 없어

문 불교가 무언지 잘은 모르지만 부처님 가르침이 좋아 집에 다니는 불자입니다. 금년 6월에 저희 딸아이가 학교 내 수영장에서 익사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제 겨우 9살, 피지도 못한 어린 꽃이었는데 말입니다. 저는 자식을 잃은 고통으로 말미암아 죽음의 유희마저 느끼고 있습니다. 어찌 이렇게 가혹한 일이 있을 수 있는지, 정녕 저의 업으로 인한 자식의 회생인지 아니면 그 아이가 이승에서의 생명이 그 뿐인지 아직도 저는 그 아이가 임마를 부르며 집으로 올 것만 같습니다. 이 세상 단 하나의 빛이었으면 그 아이가 없는 세상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듯 합니다.

다. 절에서 49재를 모셨습니다. 제가 그 아이를 위해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입니까? 그 아이가 저에게 다시 팔로써 환생하여 올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생각해 봤습니다. 제가 이 고단한 삶을 헤쳐 나갈 수 있는 길을 제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답 어느 부모가 자식이 잘못되기를 바라겠습니까? 물론 서로 구름처럼 모였다 헤어졌다 하는 인연에 의해서 부모의 인연을 맺고 자식의 인연을 맺었기 때문에 그 인연줄을 떼는 것이 참 어렵습니다. 어렵기 때문에 자식을 마음으로 못 잊어하고, 잘 되기를 원하는 그 부모의 마음은 변치 않는 것이겠지요.

그렇지만 부처님께서 그것을 고, 집, 땀, 도로 설명하셨습니까. 우리 인간이 살아 나가는 것을 왜 '고(苦)' 라고 하셨을까요? 말하자면 여러분 육신의 모든 세포가 육신으로 봐서는 법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악업, 선업이 거기 포함해서, 모두가 악업 선업으로 인해, 예를 들어서 부모의 인연이든 자식의 인연이든, 자식이 부모가 되고 부모가 자식이 되는 인연들, 또는 짐승이 사람이 되고 사람이 짐승으로 퇴보되고, 또 승화되기도 하고 이러한 인과가 모두, 거기에서 수십 억 마리가 지금 회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때로는 즐거운 일도 나오고, 때로는 속상한 일도 나오고, 때로는 우환이 생기고, 때로는 병고와 사고, 절망이 생기고, 이별이 생기는 일이 수없이 발생이 됩니다. 그 악업 선업으로 인해서 말입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 모든 것에 속지 말라 하셨습니까. 환상에 속지 말라. 일어나는 대로 모든 것을 내려놔라. 즉 말하자면 방하락 하라고 하셨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작업을 어떻게 해야만 되겠습니까? 거기서 나오는 거든지, 또 오관을 통해서 들어오는 거든지, 내가 있기 때문에 우주도 있고, 생활도 있고, 생존도 있고, 부처도 있고 모두가 있는 겁니다. 각자 내가 있다면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것이 먼저냐고 한다면 각자 내가 먼저입니다. 여러분이 계시기 때문에 부처도 있는 거지 여러분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부처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넘어지면 일어날 힘도 여러분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속에서 나오는 것을 다시 그 자리에 맡겨 놓는다면 이미 가솔은 다 돼 있으니 밝게 스스로 밝힐 수가 있는 겁니다. 산 사람의 마음과 죽은 사람의 마음은 동일합니다. 체는 없어도 말입니다. 그러니 엄마의 마음에 스윗치가 울려져서 밝게 불이 들어온다면 나와 자식이라는 인연으로 가솔된 그 자리도 더불어 밝게 불이 들어올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고 어두운 마음으로 애착하는 마음만 가지고 항상 그리워하고 있다면, 그 아이의 마음이 밝게 깨어날 수가 없지 않겠습니까? 틀어 아니니까요.

그러니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내가 살아가는 생활의 모든 것을 근본에 놓아서 근본에서 해결할 수 있게 해야 합니다. 그러고 애고 밖으로 구하고 몸을 동중 구르면서 달려나가서는 나에게도 공덕이 없고, 나와 인연했던 자식에게도 공덕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아셔야 해요. 그 자리에서 만 인연이니 그 자리에서 해결할 수 있도록 토포를 뚫어서 밀어 넣고 새털처럼 가벼운 마음으로 살아가세요. 오직 마음에서 벗어나지 않으니 마음으로 해결해야 과거의 아픈 인연들이 한 찰나에 벗어나 더 나은 인연으로 다시 만날 수도 있을 테니까요.

나쁜 꿈 좋게 돌리면 되는지...

문 여쭙고 싶은 것은, 예를 들어서 어떤 계획된 일을 앞두고 전날 밤 꿈을 꾸었을 때 이상하다는 느낌이 들고 별로 좋지 않을 것 같다는 예감이 드는 경우, 다음 날의 일정이 취소 가능한 것이라면 취소하는 것도 어려움을 피할 수 있는 한 방법이 되는지, 아니면 주인공에 관하여 좋지 않은 것도 좋게 바꾸어 쓰면 되는지 궁금합니다. 스님의 가르침 간절히 청하옵니다.

답 한 생각에 자기를 구덩이에 넣을 수도 있고 한 생각으로 인해서 자기를 구덩이에서 건져낼 수도 있는 마음의 도리, 그래서 한 생각이 그렇게 중요합니까. 꿈을 꾸고서는 나쁜 꿈을 꿴으니 오늘 조심해야지.' 하고 걱정근심을 하면 꼭 나쁘게 돌아옵니다. 독안에 들어도 못 면합니다. 그거는. 그런데 항상 얘기하듯이, 아들이 부르면 아버지의 말과 행동을 하다가 옆에서 부인이 부르면 금방 남편이 되고, 어머니가 부르면 또 금방 자식이 되듯이 우리 살림살이는 시공이 없이 돌아갑니다. 고정되게 한시도 머물러 있지 않아요. 그리고 안 되는 것도 잠시요, 한 참이요, 되는 것도 한 찰나입니다. 그러니 일거수일투족 다 나를 깨우치게 하기 위한 주인공의 나뭇잎을 믿고, 좋게 할 수도 있는 거다 하고 믿으면 말입니다.

문 한 생각에 자기를 구덩이에 넣을 수도 있고 한 생각으로 인해서 자기를 구덩이에서 건져낼 수도 있는 마음의 도리, 그래서 한 생각이 그렇게 중요합니까. 꿈을 꾸고서는 나쁜 꿈을 꿴으니 오늘 조심해야지.' 하고 걱정근심을 하면 꼭 나쁘게 돌아옵니다. 독안에 들어도 못 면합니다. 그거는. 그런데 항상 얘기하듯이, 아들이 부르면 아버지의 말과 행동을 하다가 옆에서 부인이 부르면 금방 남편이 되고, 어머니가 부르면 또 금방 자식이 되듯이 우리 살림살이는 시공이 없이 돌아갑니다. 고정되게 한시도 머물러 있지 않아요. 그리고 안 되는 것도 잠시요, 한 참이요, 되는 것도 한 찰나입니다.

그러니 일거수일투족 다 나를 깨우치게 하기 위한 주인공의 나뭇잎을 믿고, 좋게 할 수도 있는 거다 하고 믿으면 말입니다.

요. 발이 걸려 주지 않으면 움푹거릴 수가 없지요. 손을 놓려 주지 않으면 쥘 잡을 수가 없지요. 눈으로 봐 주지 않으면 무엇을 볼 수 없지요. 귀가 듣지 않으면 또 안 되지요. 하나부터 열까지 더불어 같이 그렇게 해주지 않습니까. 그런데 내가 어디 따로 있습니까?

내가 따로 내 집을 가지고 산다. 내가 따로 먹을 것을 해 줬다. 내가 가지고 있으니 내 것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팽개치고 살아도 누가 도둑질 안 해 가. 모두가 자기 게 아닌 걸요. 자기 모습도 자기가 아니에요. 그래서 제일 급한 것이, 여러분이 모두 공했다는 도리를 알아야 하는 겁니다. 공했다는 뜻이 무엇이냐? 내 몸을 놓고 봐도 공한 걸 알 수 있지 않겠습니까. 몸 속의 세포 하나 하나에도 생명의 모습들이 가지각색으로 전체가

있으니까요.

그러니 악과 선도 거기 몽땅 뇌야 해요. 악한 것은 '선하게 이끌어 줄 수 있지 않느냐' 하고 놓고, 선하게 돌아가는 거는 감사하게 놓고, 모든 것을 한 군데다가 놓는 것이, 공해서 본래 없는 것이므로 내가 따로 없다 하는 말이나 같은 말입니다. 따로 내가 있는데 따로 있다고 한다면 잘못 돼 돌아가는 거죠.

독불장군이 없습니다. 더불어 같이 돌아가고 있죠. 그러니까 그것을 완벽하게 알 때까지는 모든 것을 거기가 뇌라 이겁니다. 그게 죽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내가 공해서 세울 게 없고 내가 한 게 없다는 이 도리를 알면은 살면서도 아하, 내가 따로 없다는 것을 알게 돼요.

그러니 따로 알 것이 없다고 하는 그 중심 자체를, 바로 자기 주인공을 딱 짚고 딱쳐오는 대로 '너만이 그렇지 않게 할 수 있어.' 하고 거기가 놓는 겁니다. 해답이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할 수 있다입니다. 어떠한 거든지 무조건 다 그렇게 해 나가신다면 서서히 내가 없는 도리를 맛보고 체득하게 되어 원만 자재한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왜 이렇게 외롭고 슬픈지요

문 매일 비슷한 직장 생활의 하루, 한달 꼬박 일해 월급 받고 또 일하고 월급 받는 생활이 참으로 허무하게 느껴질 때가 많습니다. 주인공에 모든 것을 맡기고 스스로 이미 자유인이라고 다독거리며 씩씩하게 살려고 노력은 하나 가슴 한구석에 흐르는 이 외로움과 허무함에 가슴 저미도록 슬플 때가 많습니다.

사랑하는 부모님과 이별하였고, 저를 아껴주는 한 사람이 있으나 함께 있어도 함께 하지 못하는 영적인 쓸쓸함이 그저 저를 머뭇거리게 하곤 합니다. 오로지 제가 위로 받고 위가를 위해 움직일 수 있는 건 주인공밖에 없음을 절실히 느낍니다. 그러면서 도이처럼 슬퍼지는 건 왜일까요?

답 가정에서 살면서 어떠한 문제가 일어나든지, 마음에서 어떠한 것이 올라오든지 우리는 그것을 근본 자리에 다 맡겨야 만이 거기서 해결할 수 있고 거기서 만이 낮게 할 수도 있는 겁니다. 지금 현재 내가 사는 건 과거에 살 때에 저저를 갖는 거고, 저저를 가져다가 하나 하나 인연에 따라 밖으로 나오는 거니까, 그건 여러분이 어떻게 할 수 없을 겁니다. 돈 가지고 하는 건 마음대로 하지만 돈 가지고 마음대로 못하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백 천 년 살듯이 사랑을 한다 하더라도, 부모 자식기간이 다 부부기간이 다 하더라도 대신 죽어줄 사람 없고, 죽어 가는데 쫓아갈 사람도 없고, 오줌 똥 대신 뉘주는 사람도 없을 터이고 아파 줄 사람 없고, 먹어줄 사람 없습니다. 그뿐입니다, 잠을 대신 자를 사람도 없죠. 그래서 인간은 끝없는 길을 혼자 왔다 혼자 걸어간다고 그랬습니다. 우린 지금 끝없는 길을 되풀이하고 있는 겁니다. 제자리 걸음을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이 불교를 잘못 알고 잘못 믿는다면 통로는 영 찾을 수가 없습니다. 공이 나올 수 있는 통로를 진짜 찾아야 공이 나오겠죠. 그렇듯이 사람의 마음속에 통로가 있다는 걸 믿어라! 부처님 거룩을 믿으라는 게 아니고 행상을 믿으라고 하는 게 아니라 부처님 공수를 믿고 부처님 마음과 내 마음과 더불어 아니라는 도리를 알고 근본적으로는 그 마음을 알라고 했습니다.

마음의 통로가 아니라면 역대 조사들이나 역대 부처님들의 마음을 모를 겁니다. 아니, 풀 한 포기 꽃 한 송이의 마음도 모를 거예요. 그러니 괴로움이 있어도 어느 누구한테 얘기할 게 아니라, 스님들이나 역대 조사들, 일체제물이 다 내 한마음 주인공 속에 있다는 것을 알고 거기에서 만 해결할 수 있다고 무조건 먼저 놓는 겁니다. 왜 이런 게 있죠. 무조건 공공로에 넣는 작업만 하나기 무조건 새 쇠로 생산이 돼서 나가더라 하는 거요.

그와 같이 우리도 한마음 속에 삼라만상 대천세계를, 우주 전체를 거저찌에다 넣어도 두드러지지 않더라 이겁니다. 이 마음은 지금 내놓을래도 내놓을 수 없겠죠. 그래서 마음입니다. 그 마음 속에 통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떠한 사람이 잘못해도 인의롭고 부드럽게 말해 주고, 당신만이 저 사람의 물리가 터지게 해줄 수 있다고 말해 놓고 내가 잘 못했을 때의 내 모습이지. 이렇게 생각한다면 미운 생각이 하나도 없습니다. 잘못될래야 잘못될 수가 없습니다.

부처님이 가르쳐 주신 것은 현재의 실상 그대로를 가르쳐 주셨고, 실질적으로 실천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죽어서 천당에 가고 죽어서 승천하라고 한 게 아니라, 지금 모르는 사람이 어찌 승천을 하고 천당에 갑니까? 오늘이 없는데 내일이 어디 있습니까? 내가 한달 내내 일을 안 했으면 월급이 어떻게 나오니까? 이런 예누리가 하나도 없는 우리의 삶입니다. 생활 속에서, 내 속에서부터 찾아보십시오.

그러니까 무조건이요. 주인공만이 자기를 이끌어 줄 수 있으니까요. 혼자 왔다 혼자 가는 길에 그냥 갈 수는 없다는 생각이 있다면 꼭 자기를 자기가 리드해 가면서 자기를 믿고 맡겨놓고 실험을 해 보세요. 체험이 안되나 되나요. 해 보지도 않고 자기를 무시하면 자기 몸뚱이를 자기가 무시하는 겁니다. 주인을 잘 섬겨야 그 주인이 바로 자기 몸을 잘 이끌어 나가죠. 안 그럴까요?

한생각이 법이 되는 원리

문 살아가다 보면 필연적으로 많은 분란과 의혹에 휩싸이게 되는 것이 우리들의 삶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럴 때, 아니면 그렇게 되기 전에 부지런히 관을 해 놓으면 일이 작게 축소가 되기도 하고 쉽게 무마되기도 하고, 그런 것을 크게 작게 경험하고 있는데 그 한 생각이 법이 되는 그 원리는 어떤 것이지 궁금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데는 뜻이 있기 때문에 생각을 하고, 생각하기 때문에 말을 하게 되고 몸이 움직이게 되는데, 어떤 때는 말 한마디를 잘못해 가지고 큰 사태가 나서 그냥 따귀를 맞고 싸움이 일어나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말 한마디에 싸움이 일어났던 것이 그냥 스스로 잦아지기도 합니다. 그러면 어디서 그렇게 나오는 거냐 하면 비로나의 불성 자체가 무한의 능력을 가졌기 때문에 거기에서부터 말이 나왔고 법이 되는 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불성을 부(父)라고 하고 현재 나를 자(子)라고 한다면, 애비는 자식이 자기를 따르자 원하죠? 그게 사실 아닙니까? 지금 현재 세계에서든 그렇죠. 거부하고 반항하는 것을 좋아하지 않죠. 그러니까 유(有)의 세계나 무(無)의 세계나 똑같다 이겁니다. 그러면 그것을 부(父)로 따졌을 때, 전 우주를 싸고 있는 부는 자(子)가 그리로 따르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막이 가렸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을 튀우기 위해서 부를 믿고 따르라고 하는 겁니다.

현실에서도 아버지하고 불거하고 뜻을 거스르는 자식들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일이 벌어지는 것도 자기 마음이 자기 자신에 대해 무시하기 때문에 현실 그대로 그것이 나타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 한마디에 화대가 됐다 말 한마디에 그랬어! 그러면서 악수하고 술 한잔 마시고 이라는 겁니다. 이게 부처님 법이지 어디 따로 부처님 법이 있을 겁니까?

말 한마디 튀어나온 게 그만 법이 돼서 화대가 되고, 또 자기도 모르게 생각 한번 잘못해 가지고 '저거 아무것도 아닌데 왜 저럴까?' 하는 생각이 들어갔기 때문에 '아무것도 아닌데 왜들 그래.' 하고 말 한마디가 잘 나와서 화대가 되지 않고 '아, 생각해 보니까 아무것도 아닌 건데, 이해할 수 있는 건데 그랬군.' 하고 전부 마음이 편안해진다 이거죠.

그래서 물거품 같은 것을 가지고 파도를 일으키고 온통 아난을 하는 것이 우리가 모르게 살기 때문에 겪는 일입니다. 그러니 내게 지어났을 때 파도가 그냥 그대로 바다에서 일어났을 뿐인데 따로 보고 그것에 마음을 다 빼앗긴다면 부처님 한 바다의 맛을 언젠가 볼 수가 있겠습니까? 파도도 물방울도 다 그 한 바다에서 나온 것임을 알고 한생각이 법이 됨을 잊지 않기 바래요.



그림 · 최주현

나를 형성시킨 참 자기 한 곳에서 나고드는 법이니 거기에 나도 상대도 놓아가면 부처님 가르침 실천하는 것

붓났든 잘났든 자기 자신의 자성을 믿지 않는다면 누구를 믿습니까? 허공을 믿겠습니까. 이름을 믿겠습니까. 형상을 믿겠습니까. 이 세상에 누구를 믿을 겁니까?

그래서 세상만사가 꿈이자 생이고 생이 꿈이자 꿈이요. 모든 것이 내 몸뚱이 속에 다 감겨져 있던 것이 나오는 거니까, 나온 그 자리에다가 모든 걸 놓아야 바뀌어서 돌아가는 거죠. 꿈도 거기가 나온 거고 생도 거기가 나온 거고 사는 것도 거기가 나온 거고, 내가 형성된 것도 거기가 형성된 겁니다. 그러니 모든 것을 거기가 맡겨 놓지 않고 어떻게 하겠어요?

어린 자식들이 부모를 믿고 의지하듯 배울 때는 그래야 돼요. 어른이 될 때까지는, 어른이 되면 그때는 위도 알고 아래도 알면서 평등한 걸 알게 되니 믿고 안 믿고 할 것도 없이 그때는 그냥 목마르면 마시고, 배고프면 밥 먹고, 잠자고 싶으면 잠자고, 똥 누고 싶을 때 똥 누면 얼마나 시원하겠습니까?

누가 저지르고 누가 내려놓나

문 멀리 울산에서 스님의 설법이 담긴 책과 영상물을 접하고 제 마음에 동안 스님의 설법대로 생활 속에서 겪는 온갖 어려움과 기쁨과 슬픔까지도 내려놓고 또 내려놓으면서 막연히 내가 지금 슬데없는 것을 하고 있구나 하는 것을 느낍니다. 누가 저지러 놓고 누가 내려놓는 단 말인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거기가 더 이상 진전이 없습니다. 가르침 바랍니다.

답 아무 생각 없이 걸음을 쭉 걸어나가는 것이 우리가 세상사는 길이에

움푹거리고 있죠. 의식들이 말입니다.

그러나 그냥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나는 가서 이것을 취해야겠다'고 한다면 그 의식들도 '가서 이것을 취해야겠다' 그리고 같이 가요. 가는데 어떤 게 밝히든 걸리든 상관이 없다한다면 그 의식들도 그렇게 함께 하는 겁니다. 우리는 이것을 가지고 저것을 가지지만 의식들은 사람이 하는 대로 따라서 그냥 갈 뿐입니다. 벽도 붓장도 산도 물도 따로 없이 그냥 사람이 하는 대로 함께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공생(共生)입니다. 공생이라고 할 수 밖에요. 달리 말할 할 무엇이 없습니다. 부처님 진리를 더 말할 게 없다는 거죠. 본래 공생으로 살기 때문입니다. 공생으로 살기 때문에 공심으로 산다. 의식 전체가 다 공심이다. 공심으로 살기 때문에 우리가 공체로 산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모르고 죄를 지으면 모르고 받게 마련이고, 알고 짓는다면 알고 받게 마련이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절대라고 생각해요. 모든 것이 잘못되고 잘되는 것이요. 그러니깐 공한 그 중심에다가 다 맡겨 놔라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더불어 같이 살고 있으니 공생이 아닙니까? 공생 공심 공체 공음 공식하고 같이 돌아가는데, 더불어 같이 살아가는데 뭐가 내가 따로 있는가 말입니다. 내가 지는 죄가 내가 하는 것을 생각해 봐요. 그렇다고 해서 아무렇게나 막 해도 되는 것은 아니죠. 그러니까 모든 것은 자기 마음으로 다스려서 불기둥, 즉 말하자면 중심에다가 모든 것을 뇌라 이거예요. 거기가 맡겨라. 돌아가는 수레가, 바로 우리 몸이 거기에 꿰어서 돌아가고